

# 선교사와 신학적 성찰

변진석 | GMTC 원장

선교사는 신학적 성찰에 있어 깊이와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적 성찰 능력이란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선교사 멤버케어와 관련된 논의를 비롯하여, 이번 「선교연구」 76호가 주제로 삼은 '선교사의 전인적 자기 관리와 개발'은 기독교적 인간론의 발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전인성'(wholeness)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기초를 둔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정신이라고 보는 관념론적(idealistic) 인간론이나, 오늘날 팽배한 물질주의적(materialistic) 인간론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서구 중세 기독교를 풍미하였던 스콜라주의적 인간론<sup>1)</sup>과도 분명히 다른 관점이다.

목회상담신학자였던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인간의 전인성이 마음, 몸, 관계, 일, 놀이, 환경(자연 및 사회적 상황)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그것들을 묶어주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였다(Clinebell 1995, 24-28). 이와 같은 각각의 영역들을 우리는 선교사의 전인적 자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인벨이 언급한 것들 중 영성의 영역과 연관될 수 있는 신학적 성찰 능력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2)</sup>

## I. 선교사에게 왜 신학적 성찰 능력이 중요한가?

최근 *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 이라는 책이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 공공신학자의 소명 되찾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공동 저자인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와 오언 스트래헌(Owen Strachan)은 기독교 목회자가 신학적 전망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람과 프로그램의 '관리자'로 전락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기본 요지는 이렇다. 말하자면 신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된 상태다. 신학은 유배중이며,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메마른 땅, 더 이상 과거처럼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낭비된 기회의 땅이 되고 말았다(Vanhoozer and Strachan 2016, 16).

두 저자는 목회직이 신학적 혈통을 되찾아야만 교회가 일깨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남준 목사도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에서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특히 현대 설교에 있어 신학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김남준 2016, 51, 121).

서구에서는 신학의 거처가 교회에서 학계로 옮겨가고, 신학이 '전문' 신학자의 몫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목회와 신학의 분리가 일어났다. 미국의 경우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목회직이 '신학적 직분'으로서 성격을 대체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Vanhoozer and Strachan 160). 목회자들은 '실천가'이며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사역을 할 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학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자타가 간주하는 경향이 굳어졌다.<sup>3)</sup> 이것은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신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신약과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근거해 하나님에 대해 잘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노력"(위의 책, 40)이라고 할 때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신학을 어떤 특정 '전문가' 들이나 혹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신학함("doing theology")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신학적 사고(위의 책, 191)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 요소이며 중요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히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열정의 사람ियो,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추구하는 전도자며,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지만, 신학적 성찰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이미지의 형성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은 18세기 이래 서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국 선교운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흥운동의 주창자들 중에는 복음을 시급히 전파하는 것의 필요를 강조한 나머지, "신학하는 작업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의 등장 이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요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Billy Sunday)는 "토끼가 탁구에 관해 모르듯이 신학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위의 책, 161).<sup>4)</sup>

한편, 서구 교회의 부흥운동이 해외선교운동을 가속화시켰을 때 선교사들은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타문화권으로 나갔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은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가정"(Padilla 1993, 120)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선교사는 본국에서 사역할 사람들보다 교육적 수준이나 신학적 준비가 낮은 사람들이 나가

1)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발견되는 관념론적 인간관이다. 기독교적 인간론을 종합한 것으로 악과 죄가 주로 육체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인간관은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CLC, 1990), 13.  
2) 이것은 선교사의 지성, 사유 능력과도 연관이 된다.

3) 19세기 초 베를린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는 신학 교과과정을 네 부문(성서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누었다. 첫 세 부분은 학문적 분과이고, 네 번째 부문은 실천적 분과로 간주하는 '베를린' 모형은 북미 신학 교육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한국의 신학교에도 그대로 도입되어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키는 편견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케빈 밴후저, 오언 스트래헌 공저, 『목회자란 무엇인가』 (서울: 포이에마, 2016), 22.  
4) 필자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을 '에반헬리포'(evangélico)라고 지칭하는데, 자신들을 "종교개혁의 자녀들이 아니라 18세기의 복음주의 운동과 그 자매 운동들의 후손"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강하다. 특히 오순절교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자신들이 D. L. Moody, Billy Sunday, A. B. Simpson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고 있다. David del Salto, "Reconstruyendo Nuestra Identidad a Partir de Nuestra Historia" in *Cumbre Evangélico del Ecuador* 자료집(Quito, 1999), 20.

도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었다. 왜냐하면 본국보다 문명이 "낮은 단계"에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사역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Walls 2001, 38; 2002, 223). 또한 선교사들은 "신조보다는 체험에, 선교 사명에 무감각한 역사적 교회보다는 복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았고, "다양한 신학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전 세계에 한 가지 신학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많았다(Padilla 120-22). 그러한 선교사들은 현지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서도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보다는 전도자나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가 십상이었다(양낙홍 2008, 94-5).<sup>5)</sup>

그 결과 레네 빠디아(René Padilla)의 비판에 따르면, 근대 선교운동이 비서구 지역에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은 자신의 삶과 사명을 성찰하는 신학의 기능이 약한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신학적 성찰의 결핍이 가져온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Padilla 124-128).

첫째, 복음이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 속에 피상적으로 접촉될 뿐이었고,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둘째, 교회가 시대의 이데올로기들과 싸울 힘을 상실했다. 교회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을 갖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전락하여 때로는 정치적 조작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셋째, 제2세대, 또는 제3세대 그리스도인의 부재를 초래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복음이나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건전한 신학적 기초가 결여되어있거나, 그들이 신앙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의 비판은 선교사들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중시하고 전도에 열정을 쏟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며, 또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다. 김남준은 신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한 사람들이지만 그 지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핵심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세상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 사건 그 자체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종말의 전망 안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 비로소 파악되는 것입니다.(중략)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와 관계를 맺고 창조 세계와 연관을 이루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더욱 탁월하게 드러날 것입니다(김남준 429, 430).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신학이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형성하며, 이 습관이 거룩한 지혜의 삶을 만들어낸다고 했다(Vanhoozer and Strachan 133). 이 말을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한다면 신학은 선교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선교 사역의 핵심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교사가 어떤 민족이나 종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교회의 신학적 DNA를 형성하

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에서 선교사가 자신의 신학적 성찰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 '신학적 직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II. 신학적 직분으로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영국 출신 선교사로 인도에서 40여년(1936-74) 동안 사역했다. 은퇴 후 본국으로 돌아온 그는 전혀 달라진 서구문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선교사'로 살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sup>6)</sup> 그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한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 안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선교사에게 얼마나 높은 고도의 신학적 예민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그는 서구가 기독교국가 내지 기독교사회(Christendom)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신학을 발전시켜왔던 것의 한계를 지적하였다(Newbigin 2010, 12-14). 또한 그는 타문화 세계관과의 직면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해하는 복음과 신학의 폭이 얼마나 좁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그의 다섯 가지 고전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첫 번째 공개강좌의 제목을 "문화 신학"(theology of culture)이라고 정한 이후 연구를 발전시킨 목직한 전집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모든 연구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한 문화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 속으로 전달하려는 선교 경험

을 갖지 못했던 신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Newbigin 1986, 1).

필자는 뉴비긴이 남인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타 밀어로 집필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한 책인 『죄와 구원』(2013)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안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존 스토틀(John Stott)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의 깊이와 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토틀가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면, 같은 영국 출신이지만 뉴비긴은 인도인들에게 매우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며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선교사야말로 열방에 흩어져 나가 타문화권 상황(cross-cultural context)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하는("doing theology") 사람이다.<sup>7)</sup>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 '신학적 직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증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 애초에 선교적 상황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형성되고 활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데이빗 보쉬(David Bosch)는 "신약성서 기자들은 종이에 펜을 대기 전에 증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학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가 세상과 선교적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교회의 '비상 상황'에서 글을 썼다"고 했다(Bosch 1991, 16).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마틴 켈러)이다. 바울은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 였기에 기독교의 '첫 번째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데이빗 보쉬), "신학이란 바울이 창시(invent)한 것이다"(톰 라이트)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진 과업의 본질상 신학적인 성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폴 히버트)이다.

5) 예를 들어, 한국선교 초기에 세워진 평양신학교의 낮은 학문적 수준이 한국 목사 후보자들의 지성적 훈련의 부실화 초래의 전통을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많다.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생명의 말씀사, 2008), 97.

6) 「Christianity Today」가 1996년 뉴비긴 특집 기사를 '레슬리 뉴비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 God's Missionary to Us'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았다. 여기서 '우리'란 서구인들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곳으로 간주되었던 서구의 상황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는 말이다.  
7) 지오프리 웨인라이트는 뉴비긴에 대한 평전(評傳)을 쓰면서 의미심장하게도 "신학적 삶"(A Theological Life)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III. 신학적 성찰의 주요영역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사는 타문화권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기독교 신학자(Vanhoozer and Strachan 40)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선교사의 신학적 성찰 영역은 '무한'에 가깝다고 하겠다. 하지만 필자는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신학적 성찰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영역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영역들을 발전시키는 데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삼위일체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는 삼위일체 교리는 단지 "하나님의 꼭대기에 얽은 신학 장식"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린다.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명확히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없는,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과 단절된 복음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는 피상적인 복음으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으며,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역시 그러한 복음을 믿을 리 만무하다(Reeves 2013, 59, 62).

이처럼 삼위일체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복음적" 교리(Vanhoozer and Strachan 129) 일 뿐 아니라 선교적 교리이기도 하다. 뉴비긴은 초대교회가 이교도(pagan) 세계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투쟁 속에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시켰지만, 로마제국이 기독교화되고 소위 "기독교권"(Christendom)이 형성된 다음부터는 그 교리가 기독교인들의 사고 속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sup>8)</sup> 삼위일체 교리는 단지 과거로부터 전해진 존중받아야 할 교리이거나, 혹은 불신자에게 신앙을 전파하고자 할 때 신학적 골칫거리로 간주되었다(Newbigin 1963, 35). 하지만 기독교권(Christendom) 밖에 있는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비기독교인에게 전하고자 할 때 삼위일체 교리는 선포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선교사 경험을 통해 발견한다.

심지어 선교적 선포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 할지라도, 이 교리를 다루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전도자가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농촌마을에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할 때, 그는 어떻게 그 이름을 소개할 것인가? 이교적 정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추측컨대 청중들은 이미 자신들의 언어 속에 '신'(god)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그 단어와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선포된 복음이 많은 신들(gods)에게 익숙해있는 청중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른 신, 이번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자비로운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그것은 신약성경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 농촌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희미할 지언정 모든 신들(gods) 뒤에 있는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God)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것

을 언제나 발견해왔다. 이런 의식이 그들 마음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그것과 연결시킬 것인가?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것인가? 분명히 이것 또한 신약성경의 신앙이 아닐 것이다. 누구든 그를 아들(the Son)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라도 예수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계시이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는 그를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선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만 한다(Newbigin 1998, 35-6).

'오래된 미래' 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것이 그냥 과거로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뿌리를 제공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이나 개념을 일컫는다고 할 때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고대 교회의 교부들을 통해 신약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다신론 세계'라는 당시의 선교적 상황에서 명료하게 체계화한 신학이었다. '호모우시오스'(동일한 본질), '페리코레스시스'(상호침투), 그리고 '필리오케'("그리고 아들로부터")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된 개념들은 단지 사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개념들로 재조명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같은 '최첨단 선교학'에 기초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는 삼위일체 진리가 복음과 교회, 선교 및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리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선교사들은 '공적 진리'로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엘리스터 맥그래스(Alistair McGrath)의 『신학의

역사』(지와 사랑, 2016), 미로슬라브 볼프(Moroslav Volf)의 『삼위일체와 교회』(새물결플러스, 2012),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IVP, 2010), *Trinitarian Doctrine for Today's Mission* (Paternoster Press, 1998)과 같은 책들이 신학적 성찰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성경 해석학 및 설교학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고 명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며,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 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신학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성서를 더 잘 따르는 이들이 되도록 돕는" 역할(Vanhoozer and Strachan 194)을 한다.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교회의 건전한 신학적 전통과 성경해석학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존 스토틀의 말대로 성경에 최고 권위를 부여한다고 해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Steer 2010, 182). 이를 위해 선교사들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과 관련된 최근의 눈부신 발전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GMTC 졸업생들은 훈련기간 중 배운 '강해식 QT'를 꾸준히 하여 본문이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가운데, 타문화권 상황에서 현지인의 세계관과 문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전달(설교)을 위한 지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sup>9)</sup>

특히 선교사들로서 우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제시한 성경에 대한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s)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교는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8) 특별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을 모순된 교리로 간주하였는데, 슐라이어마허는 삼위일체론을 기독교 신학의 '부산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뒤바꾸고 20세기 신학에 있어 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사람은 칼 바르트였다. 그는 자신의 『교회 교의학』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루었다. 맥그래스, 『신학의 역사』(서울: 지와 사랑, 2016), 469.

9) 필자가 읽으며 유익했던 책들을 몇 권 소개한다. 케빈 밴후저,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IVP, 2003); 조지 거스리, 『삶을 위한 성경읽기』(성서유니온, 2011); 톰 라이트,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새물결플러스, 2011); 고든 D. 피, 『성령』(새물결플러스, 2013); 신성욱,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두란노, 2014); Dean Flemming, *Contextua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Patterns for Theology and Mission*(IVP, 2005); 그리고 필자는 *NIV Application Commentary*를 통해 본문연구와 설교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폴 히버트 박사의 문화인류학 저작들을 통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

전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며,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글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기에 우리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으려고 하기도 "성경의 선교적 기초"를 찾아야한다 (Wright 2010, 24)는 그의 주장을 통해 '선교의 하나님'과 '선교의 책'으로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 3. '복음주의'(evangelicalism) 정체성

내년은 종교개혁 오백주년(1517-2017)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개신교인',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며 선교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신학적 능력도 요구된다고 본다.

일례로 필자가 속해있는 GMTC는 '복음주의 초교파 선교훈련원'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sup>10)</sup>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재근은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에서 복음주의가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개신교 세력을 지칭하였다면, 18, 19세기에는 이미 기득권이 된 개신교 정통주의나 국교(國敎), 혹은 세속화에 대한 저항이었고, 20세기 맥락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현대주의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와 차별화하는 진영이라고 했다. 21세기 복음주의 진영은 에큐메니컬-자유주의 진영과 일정한 구분선을 긋고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재근 2015, 23-26).

이러한 모든 내용은 우리가 어떤 교회 및 신학적 전통에 서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근거하여 우리의 예배와 고백 및 삶에 대한 깊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신학적 전통과 교류를 통해 외연(外延)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벤후저는 복음주의자란 개신교인이며, 개신교인은 (로마가톨릭 교인이 아니라) 개혁된 가톨릭(catholic) 교인(공교회 교인)임을 주장한다(Vanhoozer and Strachan 218). 그것은 "완전하고 실제적인 복음주의는 가톨릭적이어야 하고, 참된 가톨릭적주의는 복음주의와 똑같아야 한다."(Bloesch 1993, 35)는 도널드 블러쉬(Donald G. Bloesch)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복음주의 신자들은 이천년간 존재해온 전(全)교회와 그 공교회의 역사적이고 신학적 전통을 이어간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신학을 경시하거나, 신학적 깊이를 더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그러한 신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니케아 신조의 근본 사상으로, 그리스 교부의 통찰력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종교 개혁자, 존 웨슬리와 같은 이들의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Webber 2010, 100).

그러나 교회의 가톨릭적 유산을 중시하지만 복음주의 신자들은 "성경의 조명하에 교회전통 속에서의 진리와 거짓 사이를 구별"(Bloesch 32)하려고 노력하는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근거한 것인데 "개신교는 각 사람이 교황이나 집중된 권력을 지닌 다른 종교적 권위자가 내려 보낸 '공식' 해석들에 억지로 복종하기보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McGrath 2012, 12)함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맥그래스는 개신교의 정체성을 여러 면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꺼이 자신을 고쳐나가고 하는" 독특한 신학화(theologizing) 방법론이야말로 21

세기에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신교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한다(위의 책, 745, 746).<sup>11)</sup>

참다운 복음주의의 정체성의 핵심은 복음적 메시지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신학과 전통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개혁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살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성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 밖에도 선교사들이 신학적 성찰의 주요한 영역에 포함시킬 것들이 많을 것이다. 선교역사를 서구 중심이 아니라 범세계적(global) 관점으로 재조망하는 작업이라든지, 선교지 교회들의 자신화화(self-theologizing)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등 외에도 현재 발전하고 있는 우주론이나 뇌과학,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같이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성경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하는 신학적 성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IV. 신학적 성찰 능력 강화 방안

다양하고도 많은 사역에 몰두해야 하는 선교사가 신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예민한 신학적 통찰력은 '학문의 세계'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신학은 성찰(reflection)과 실천(practice)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다(Wainwright 2000, v).

사도 바울의 신학은 선교 사역 현장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산출되었다. 그는 선교사적 신학자 (missionary theologian)였을 뿐 아니라 과업에 초점을 맞춘 신학자(task theologian)였다(Flemming 2005, 89). 아우구스티누스도 자신은 "한

가롭게 신학적 몽상을 즐길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공적 가르침을 위해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공부할 시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Vanhoozer and Strachan 133 재인용). 학문적 사색을 위해 신학적 성찰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선교사들의 신학적 성찰 능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자신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신학적 성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라. 선교사들은 타문화권에서 다른 종교적 배경의 유산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갈등과 지적 압박감 속에 살고 있다.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 남기 위해', 자신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라도 신학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신학연구와 성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유명한 글 "바쁘지 않은 목사"에서 사역자가 '바쁘다'라는 말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조짐이라고 했다. 그는 바쁜 이유를 꼭 찬 스케줄을 가져야 자신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허영심'이나,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순위를 따라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나태함' 때문이라고 했다(Peterson 2016, 52). 그는 '약속 달력'에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을 것을 제안한다. 가령, "사도바울과 30분 회의"라든가 "도예토엠펬스키와 2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표기해 놓는다는 것이다. 존 스토틀은 웨일스의 폐가(혹시스)를 개조하여 한 달의 하루 '조용한 날'을 보낸 것이 그의 사역의 생명줄이 되었다고 한다(Steer 2010, 122-26).

**셋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틈틈이 생기는 짧은 시간도 읽고, 쓰고, 성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필

10) 참고로 GMTC가 속해 있는 한국해외선교회(GMF)는 2015년부터 '복음주의' 선교단체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로잔운동에서 발표한 문서들(1974년 로잔언약, 1987년 마닐라 선언, 2010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타난 신앙적, 선교적 방향을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1) 한편 맥그래스는 이와 같은 '동태적' 비전과 달리 개신교의 정체성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개신교 전통주의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개신교의 정체성을 규정한 순간들(16세기 칼뱅주의, 17세기 청교도,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자 등)을 '원형 그대로 지켜야만' 개신교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맥그래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744.

자는 '뭉텅이'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스탠리 하우어위스 (Stanley Hauerwas) 글을 읽으며 바꾸었다. 2001년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던 그는 "15분이 있으면 이것저것을 읽을 수 있고, 여가져기서 30분만 주어진다면 뭔가를 쓰는 것을 끝낼 수 있다." (Hauerwas 2016, 98, 168)고 했다.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벽돌 쌓는 조적공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배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신학자로서 많은 일을 해낸 비결에 대해 건축현장에서 일할 때 "물을 마시러 갔으면 반드시 벽돌 몇 개라도 가지고 자리에 돌아오는 원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Hauerwas 98).

넷째, '뿌리 캐기'식 공부를 하라. 신학과 사상은 그것을 형성한 배경과 뿌리가 되는 신학과 사상들이 있다. 가령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을 읽고, 또 플라톤의 사상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의 서구 계몽주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안목은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에서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좀 두껍기는 하지만-총 935페이지!) 에르하르트 부쉬가 쓴 칼 바르트의 전기<sup>12)</sup>를 읽기 시작했다. 20세기 삼위일체 교리의 재발견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의 발전의 기초가 칼 바르트의 저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책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그가 쓴 대작 『교회 교의학』(Church Dogmatics)도 읽어 보고 싶다.

다섯째, 기록을 남기라. 읽은 것이나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고, 기회가 된다면 통합하여 글로 쓰는 것이다. 책에서 읽었던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심오한 통찰력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종국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책을 읽으며 여백에 기록해 놓거나, 다이어리에 따로 옮겨 적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노트기능이 있는 스

마트폰도 기록을 위한 유능한 도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록들을 활용하여 일정한 양의 주제가 있는 글로 통합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나 요구가 있을 때 쓰게 마련이다. 필자의 경우는 GMTC에서 일 년에 두 차례 발간하는 「선교 연구」에 의무적으로 기고해야 하는 것이 부담도 되지만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경우는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설교를 작성할 때나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런 기록들을 자료 삼아 선교적이고 신학적 성찰을 담은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선교연구」를 비롯한 선교단체의 회보나 「KMQ」같은 곳에 기고하면 좋겠다. 요즈음은 선교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포럼)들이 개최되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여 쓴 글을 나눌 수 있다면 신학적 성찰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결론>

근래에 우리는 선교사가 '성찰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곤 한다. 그런데 성찰의 대상과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실천(사역과 경험)에 국한된다면 매우 얇은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 성찰을 통해 그 깊이와 넓이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다.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얻고자 하는 믿음의 끊임없는 충동질이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Vanhoozer and Strachan 40)이라고 할진대 선교사가 신학적 성찰 능력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선교사의 전인적 자기 관리의 핵심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 ∞

### <참고문헌>

Bosch, David. 1991.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Bloesch, Donald 저. 이형기, 이수영 역. 1993.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Clinebell, Howard 저. 이종현, 오성춘 역. 1995. 『전인건강』.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Flemming, Dean. 2005. *Contextua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Downers Grove: IVP.

Hauerwas, Stanley 저. 홍종락 역. 2016. 『하나의 아이』. 서울: IVP.

Hoekema, Anthony 저. 류호준 역. 1990.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CLC.

소기천 외 2인 공역. 2016. 『신학의 역사』. 서울:知와 사랑.

McGrath, Alister 저. 박규태 역. 2012. 『기독교 그 위대한 사상의 역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_\_\_\_\_. 소기천 외 2인 공역. 2016. 『신학의 역사』. 서울:知와 사랑.

Newbiggin, Lesslie.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_\_\_\_\_. 1998. *Trinitarian Doctrine for Today's Mission*. Kent: Paternoster.

\_\_\_\_\_. 홍병룡 역. 2010.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_\_\_\_\_. 홍병룡 역. 2013. 『죄와 구원』. 서울: 복있는 사람.

Padilla, René 저. 이문장 역. 1993.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서울: 대장간.

Peterson, Eugene. 2016. "바쁘지 않은 목사."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한국판』. 4월호.

Reeves, Michael. 2013. " '3'이 가장 아름다운 숫자인 이유."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한국판』. 3월호.

Steer, Roger 저. 이지혜 역. 2010. 『존 스토트의 생애』. 서울: IVP.

Vanhoozer, Kevin J. and Owen Strachan 공저. 박세혁 역. 2016. 『목회자란 무엇인가』. 서울: 포이에마.

Wainwright, Geoffery. 2000. *Lesslie Newbig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lls, Andrew F. 2001. "The Eighteenth-Century Protestant Missionary Awakening in Its European Context." in Brian Stanley(ed.), *Christian Missions and the Enlightenment*, 22-44. Grand Rapids: Eerdmans.

\_\_\_\_\_. 2002.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Orbis Books.

Webber, Robert 저. 이윤복 역. 2010.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한다』. 서울: 조이선교회.

Wright, Christopher 저. 정옥배, 한화룡 공역. 2010.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김남준. 2016.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양낙홍. 2008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

이재근. 2015.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서울: 복있는 사람.

12) 에르하르트 부쉬, 『칼 바르트: 20세기 신학의 교부, 시대 위에 우뚝 솟은 신학자』(복있는 사람, 2014).